

The Purpose of Creation

창조의 목적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 저

Dr. Abu Ameenah Bilal Philips

아미나 꽈은미 / 옮김

아담 출판사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 저
Dr. Abu Ameenah Bilal Philips

학력 및 전공

- 1972 이슬람 입교
1979 메디나 이슬람 대학 아랍어 학사
1985 리야드 대학 이슬람학 석사
1994 웨일즈 대학 이슬람학 박사

약력

- 리야드 사립학교, 이슬람 교육과 아랍어 강의 (10년)
1994 두바이 Islamic Information Center 설립
두바이 The Foreign Literature Department 설립
(현) 두바이 The American University 재직, 아랍어와 이슬람학 강의

저서

- Tafseer Soorah al-Hujuraat
Fundamentals of Tawheed
Salvation Through Repentance
Islamic Studies Book I & II
Hajj & Umrah
Arabic Reading & Writing Made Easy
Islamic Rules on Menstruation and Post-Natal Bleeding
The Best in Islam
Dream Interpretation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Allah,
Most Gracious, Most Merciful

The Purpose of Creation

창조의 목적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 저

Dr. Abu Ameenah Bilal Philips

아미나 꽈은미 / 옮김

아담 출판사

목차

서문

제 1장 창조의 목적

제 2장 하나님은 왜 인류를 창조하셨을까?

제 3장 지상에 인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제 4장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결론

하디쓰 목록

성 꾸란 구절 목록

참고 문헌

서문

일생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접하고 당혹해 하기 마련이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혹은 “내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넘지시 던져보기도 한다.

인간의 구조와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복잡한 체계는 참으로 다양하며 난해하다. 이는 필시 그것들을 창조해 낸 절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도안이 있다면 반드시 그 도안을 고안해 낸 디자이너가 존재한다. 해변가 모래밭에 찍혀있는 발자국을 보면 이전에 이미 누군가 다녀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다에서 밀려온 파도가 해변가 모래밭에 사람의 발자국과 똑같은 모양을 우연히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적 있는 행동은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 낸 자연적 산물이다. 고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절대자가 특별한 목적 하에 인간을 창조했다고 결론짓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현세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한다.

수 세대를 걸친 인류 역사에서 오직 소수의 부류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영원한 것이며 인간도 단지 물질적 요소의 우연한 결합으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우연적 산물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라고 물어 본다면 그 답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의 목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세대 동안 절대 다수의 인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의 존재를 믿어왔으며 지금도 계속 그렇게 믿고 있다. 창조주와 인류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답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이 질문이 어떤 관점에서 정의되는지 고찰해 보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창조하게 했는가?”라는 뜻이 된다. 인간의 입장에서 같은 질문을 고찰해 보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가?”라는 의미가 된다. 두 관점 모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유도한다. 앞으로 본서에서는 이 질문의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채색된 분명한 그림을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사색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제가 아니다. 인간의 억측으로는 이 문제에 숨겨진 진실에 결코 접근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두뇌와 더 큰 실재 그리고 지성과 기능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의 실체를 지성에 의지하여 추론할 수 있겠는가? 수 세대를 걸쳐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찰을 거듭하여 셀 수 없이 무수한 답변을 제안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대답은 모두 증명될 수 없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급기야 다수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실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가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428-348BC)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감각을 사용하여 매일 변화하는 세상을 인식한다. 매일 변화하는 세상은 근본적 실재가 아니며 단지 근본적 실재의 외관을 닮은 그림자 세상에 불과하다.>¹⁾ 앞서 언급했듯 어떤 이들은 인간이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 존재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다. 무생물이 생물로 진화한다면 순전히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며 이에 어떤 목적이 내재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인류의 ‘**사촌**’인 원숭이와 유인원도 존재에 대한 질문 따위로 근심하지 않는 데 왜 인류가 그런 질문 따위로 고심해야 하냐고 반문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 창조에 관한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다. 만일 인간이 그 정확한 답을 모른다면 그는 한낱 주위의 동물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될 것이다. 동물로서 충족시켜야 할 식욕, 성욕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그는 이 제한적 측면에 온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질적 만족이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버릴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장 하등한 동물보다도 더 못한 미천한 존재가 된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지성을 계속 오용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지성은 마약과 폭탄을 만들어 내고 간통이나 포르노, 동성연애, 점보기, 자살 등에 탐닉한다. 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의미 없이 생을 낭비하며 내세에 마련된 보상인 영원한 행복의 삶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인간은 종종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하나님의 계시록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선지자를 통해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계시하셨다. 인간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유대교-기독교의 성경

정직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 특히 구약 성경은 인간 창조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율법과 초창기 인류와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²⁾ <창세기>에 하나님은 세상과 아담과 이브를 6일 만에 창

1) 이 관점은 플라톤의 저서 <공화국>에 동굴 은유를 통해 소개된다. 플라톤은 변화하는 물질세계를 동굴 벽화상의 그림자에 비유하였다.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a, vol.25, p.552 -

2) <이사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기록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 이사야 43:1 -

조하시고 7일 째 되는 날에 ‘**휴식**’을 취하셨다고 묘사된다.³⁾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벌을 받게 되며 그들의 아들인 가인은 아벨이라는 형제를 살해하고 노드의 땅에서 살기 위해 떠난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일에 대해 ‘**후회**’하게 된다.⁴⁾ 구약 성경에 제시된 인류창조의 목적에 대한 구절들이 모호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징적 표현의 남발로 인해 독자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의 다음 구절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⁵⁾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수많은 종파들은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초창기의 선지자들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여 주었으나 그 후 추종자들 중 일부가 사탄과 공모하여 성서를 고쳐나갔다. 해답의 의미는 모호해지고 계시의 상당 부분이 상징적 언어 속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عليه السلام)⁶⁾를 유대인에게 보내셨다. 그는 성전 안에서 사업을 논하던 상인들의 탁자를 엎어 버린다.⁷⁾ 예수(عليه السلام)는 유대인 탐비들이 제정한 율법의 의례적 해석에 반대하여 설교한다. 예수(عليه السلام)는 선지자 모세(عليه السلام)의 법을 확증하고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려 왔다. 그는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쳤으며 현세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최후의 순간까지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 주었다. 그러나 예수(عليه السلام)가 세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라지자, 소위 예수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예수가 가져왔던 분명한 진실은 모호한 어조를 띠기 시작했다. 예수 이전의 사도들이 가져왔던 모든 분명한 복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요한 계시록>에는 상징법이 도입되고 예수에게 계시된 복음서는 상실되었다. 현존하는 <4복음서>란 상실된 예수의 복음서를 대체하기 위해 4세기 경 성(聖) 아타나시오스 대주교가 선택한 사람들이 집필한 것이다.⁸⁾ 신약 성경에 포함된 바울서신 등 23권은 그 솟자상으로도 4권의 복음서를 훨씬 능가한다.⁹⁾ 따라서 신약 성경을 읽어본 독자는 **왜 하나님**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아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 이사야 43:6 -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 이사야 46:7 -

3)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 창세기 2:2~3 -

4)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 창세기 6:6 -

5) 창세기 6:1~2

6) 이 아랍어는 ‘평화가 깃드시기를’이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은 선지자의 이름 뒤에 존경의 표시로 붙여 부른다.

7)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 누가복음 19:45 -

8)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14

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신약 안에서 찾을 수 없다.¹⁰⁾ 그래서 어느 종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고안된 교리를 막무가내로 추종하는 데만 몰두해버릴 수 있다. 4복음서는 각 종파의 믿음에 따라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에 다시 한 번 당황하게 된다.

성 육신 사상¹¹⁾

기독교의 수많은 종파들이 수렴하는 유일한 공통 의견은 아마도 인간 창조의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아담이 저질러 자손 대대로 물려진 원죄를 씻어주기 위해 스스로 적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교리다. 기독교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담의 원죄는 너무나 엄청난 것으로 어떤 인간이 회개하더라도 소용없으며 그 누구도 죄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한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므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인류를 원죄로부터 구원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만든 신화에 대한 믿음만이 교회의 주장에 따라 구원의 유일한 절대 원천이 되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희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에서 추론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¹²⁾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앞서 언급된 기독교의 주장이 창조의 목적이자 영원한 삶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 왜 예수 이전과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혀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는가?

9) 4세기 중엽 시나이티쿠스라고 불리는 사본인 '바나바와 헤르메스 양치기의 서신'이 신약성경의 일부로 삽입되었다.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4, p.814 -

10) 킹 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의 요한 계시록 4:11은 창조의 목적으로써 인용할 만한 구절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기쁨으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같은 구절이 현대 영어 성경(Revised Standard Version)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골로새서의 <바울의 감사>에는 세상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기록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 골로새서 1:15~17 -

11) 하나님의 예수로서 지상에 태어났다는 교리

12) 요한복음 3:16

하나님은 왜 아담과 그의 자손의 시대에는 인간이 되지 못했으며 그 때 아담을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재 목적을 이루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예수 이전에 생존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존재 이유를 갖고 있었단 말인가? 만일 지금이라도 예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부과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런 창조의 목적은 분명 한계를 지닌 것으로 모든 인류를 수용하는데 너무나 역부족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힌두 경전은 다수의 신과 신의 재현의 교리, 신의 의인화 등을 가르친다. 특히 모든 것이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신이라고 주장한다. 힌두교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자아(아트만)가 실제로 ‘브라만’ 즉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은 처음부터 정신적 우월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믿음이 엄격한 카스트 제도 하에 발달하였다.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은 베다¹³⁾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의식적 정화와 사회적 명성의 이상향이다. 한편 수드라 계급(노예 계급)은 종교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들의 생의 유일한 의무는 3개의 주요 계급과 그 주요 계급이 동반하는 수천의 하위 계급들을 “온순하게 시중드는 것”뿐이다.

힌두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류는 자신의 신성(神性)을 깨닫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마르가’라고 불리는 하나의 길을 가다가 환생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됨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아트만)은 궁극적 실재인 브라만 속으로 재 동화된다. 바크티 길¹⁴⁾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의 목적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의 신은 자식들로 인해 기뻐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인류를 창조했기 때문이다.¹⁵⁾ 보통의 힌두교인은 세속적 삶의 목적이 그들의 카스트 제도(카르마의 길)를 유지하기 위한 전통적 행동 규범을 따르고 사회적 · 의식적 의무를 다하는데 있다고 말한다.¹⁶⁾

베다를 경전으로 삼는 종교는 제물을 태우고 그 주위를 빙빙 도는 의식을 갖는다. 베다 외에 다른 경전에서 가르치는 힌두 교리와 관습으로 인해 베다 경전 위주의 종교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베다만이 갖는 절대적 권위와 신성함은 사실상 모든 힌두 종파와 전통의 중심축이다. 베다는 네 권의 경전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리그베다(구절의 지혜)다. 리그베다는 가장 혼란스러운 용어로 신을 묘사하며 다신

13) 베다는 ‘자식’이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베다는 힌두교의 여러 계시록(스루티 : 들은 것)을 모아 놓은 것을 뜻하는 종체적 단어다. 힌두교의 실제적 교리와 의식을 담고 있는 다른 경전들은 모두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모리티(기억된 것)로써 따로 분류된다.

14) 개별적 신을 숭배하는 길로 곧 우상(무르티스) 숭배를 의미한다. 우상은 다음 생애에 그들을 영혼의 행성(크리쉬날로카)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15) 스리마드 바그와타

16)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0, p.520

교적 성격을 보인다. 주로 하늘과 대기에 관련된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는데 치중해 있다. 주요 신은 ‘인드라’, ‘바루나’, ‘아그니’, ‘수르야’다. ‘인드라’는 하늘과 비의 신이며, ‘바루나’는 우주 질서의 수호자이다. ‘아그니’는 희생제의 불을 의미하며 ‘수르야’는 태양을 뜻한다. 후기 베다에서는 초기 베다인 리그베다에서 등장하는 신에 대한 관심이 쇠퇴한다. 또한 ‘프라자파티’¹⁷⁾라는 이름의 신에게 제물을 희생시키는 의식이 초기의 다신주의를 대체한다. 우파니샤드(우주의 균형에 관한 신비스런 가르침)는 ‘프라자파티’를 최고의 실재이자 우주의 본질인 ‘브라만’의 개념과 통합시키면서 의인화적 성격을 없애고 신화 대신 추상적 철학의 형태를 도입한다.¹⁸⁾ 만일 이 경전들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잡이의 전부라면 독자는 신이 창조의 목적과 신의 존재를 스스로 숨기려 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신은 결코 인류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작가가 아니다. 1400년 전 하나님은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성 꾸란**을 계시하셨으며 다가올 모든 인류를 위해 그것을 완벽하게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마지막 성서인 성 꾸란을 통해 인간 창조의 목적을 계시하셨으며, 그 분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계시하셨다. 본서는 마지막 계시서인 **성 꾸란과 선지자의 말씀**을 근간으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정확한 해답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17) ‘페조물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8)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0, p.529-530

제 1 장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야기된다. 사실상 인간이 가장 위대한 피조물은 아니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의 가피르장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실로 하늘과 대지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성 꾸란 40:57

인간의 구조란 그의 삶의 터전인 우주의 구조에 비해 훨씬 단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진실에 대해 숙고해 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과 지식의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발전은 세대가 지날수록 인간을 더 오만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부추긴다. 아무리 주위 환경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이루었다 한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놀라운 업적들은 가치를 상실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보다는 물질의 세계를 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앞서 인용한 성 꾸란의 구절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보자. 하나님은 인류가 현세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지위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기적으로써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그저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된 이유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 보자.

창조주

기본적으로 창조란 ‘창조주’라는 신의 속성의 결과물이다. 창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란 용어상으로도 모순이다.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을 필요로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 작가의 위대함은 작품에서 드러나듯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주로서의 속성은 피조물에서 나타난다. 진실로 창조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속성이다. 인간은 자신도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진실한 창

조라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신 원료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테이블을 만들려면 목재와 못과 나사가 필요하다. 나무는 목재의 원료다. 바위로부터 산출한 금속은 못과 나사의 원료다. 나무와 바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인간의 모든 생산품은 인간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근본 재료를 필요로 한다. 예술가의 ‘창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술가는 이미 보았던 대상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창조’한다. 단 한번도 감각 기관을 통해 인지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예술가의 사상이란 결국 이미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숙고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고대 철학자와 현대 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⁹⁾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몸의 일부로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하여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계를 지닌 인간에 비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마지막 성서인 성 꾸란 슈아라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그분에 비유할 것 아무 것도 없도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성 꾸란 42:11

창조의 행위는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결과다. 하나님은 성 꾸란의 여러 구절을 통해 그 분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그 분께 속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성 꾸란 39:6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그러하다고 하니

성 꾸란 37:96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앙을 피하려 시도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들은 모두 명백한 과오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불행을 미리 피하거나 행운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주문과 부적, 점성술, 손금보기 등을 시도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서인 성 꾸란의 팔라끄장을 통해 인간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19) 힌두교의 최고 실재인 브라만에 관한 믿음이기도 하다. 리그베다의 마지막 10권째 경전 중 “우주 사람에 대한 찬가(푸루사수크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태초의 회생으로 한 명의 우주 사람(푸루사)의 몸이 불에 타 잘라져 나갈 때 그 각 부분에서 우주가 태어났다. 4개의 카스트 계급 역시 그 몸의 일부에서 생겨났다. 그의 입에서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이 탄생했으며 팔에서 무사 계급인 라자나야가 태어났다. 그의 허벅지에서 농민 계급인 바이스야가 태어났으며 그의 다리에서 노예 계급인 수드라가 태어났다.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0, p.531 -

일러가로되 동녁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
창조된 사악한 것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성 꾸란 113:1-2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알라²⁰⁾는 악이 아니라 선이시다. 그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그 분이 원하시는 자마다 재난이나 복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현세에서 어떤 재난이나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도움과 보호를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혀친 일이다.

하나님의 허락없이 어떤 재앙도 있을 수 없나니

성 꾸란 64:11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²¹⁾께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말씀을 남기셨다.

“모든 인류가 서로 모여 여러분을 도우려 노력한다 해도 알라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기록해 두신 만큼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모두 모여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알라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기록해 두신 만큼만 해를 끼칠 수 있다.”²²⁾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2, p.308-309, #2043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분의 자비의 속성과 용서를 베푸시는 속성이 드러났다. 인간은 선과 악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순수하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욕망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반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은 쫓는데 눈이 멀 수도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류가 순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인류를 창조하셨다. 주님께서는 아담^{عليه السلام}으로 시작하는 전 인류에게 회개하는 방법과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가 보여준 양식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하고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용서하신다. 인간의 불복종과 회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의 속성과 무한한 자비의 속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마지막 선지자님²³⁾께서 이 진실에 대해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20) 아랍어 ‘알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God’,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다. 무슬림은 하나님을 칭할 때 어떤 다른 단어보다도 ‘알라’라는 이름을 선호한다.

21) 이 아랍어는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깃드시기를’이라는 뜻으로 무슬림은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의 이름 뒤에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붙여 부른다.

22) 이 하디쓰(선지자 무함마드²⁴⁾의 언행록)는 암바스^{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을 따른다.

“만일 여러분이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아 알라께 귀의하여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진다면, 알라께서는 여러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알라의 용서를 간구하는 백성이 될 것이며 알라께서는 이에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²³⁾

사히 무슬림 vol.4, p.1435-1436, #6621

성 꾸란의 전체 114장 중 단 한 장을 제외한 모든 장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문과 함께 시작한다. 알라의 자비와 용서의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한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귀의하여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다. 사도님 ﷺ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알라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알라께서 그 분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고 보관하고 계신다: 나의 자비는 나의 분노를 압도한다.”²⁴⁾

사히 무슬림 vol.4, p.1437, #6628

“[알라께서 창조하신] 자비는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개의 자비가 진과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 내려왔다. 그 1개의 자비로 인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동물들도 새끼에게 사랑으로 대한다. 심판의 날이 되면 알라께서 나머지 99가지 자비를 그 분의 진실한 송배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²⁵⁾

사히 무슬림 vol.4, p.1437, #6631

알라께서 원하셨다면 모든 인류는 천사처럼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 분은 이미 죄로부터 순결한 천사들을 창조하신 바 있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속성이 드러나게 된다.

최후의 정의

현세의 종말과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속성 중 최후의 정의와 공정함의 속성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분의 무한한 지혜로, 대지 위에 살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들 중 일부를 처음부터 천국으로 보내시고 나머지를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알라는 그들이 현세에서 취할 선택과 그들에게 주어질 양식과 기회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다. 또 어떤 믿음의 상태나 불신의 상태로 그들이 임종을 맞이하는지에

23) 아부 아이웁 알 안사리 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을 따른다.

24) 아부 후라이라 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을 따른다.

25) 아부 후라이라 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을 따른다.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는 <천국의 거주자들이 처음부터 창조되었고 마찬가지로 지옥의 거주자도 이미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지자 무함마드^ﷺ의 부인이신 아이샤^{رضي الله عنها}²⁶⁾께서 전승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알라께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으며 각각의 거주자들 또한 창조하셨음을 알지 못하는가?”

사히 무슬림 vol.4, p.1400, #6435

만일 천국으로 운명 지어진 사람들을 알라께서 처음부터 바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신다면 그들은 알라의 결정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의 거주자들은 행복하게 영원한 은총의 삶을 만끽하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창조되자마자 즉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만일 지상에 살아 보았다면 저질렀을 모든 죄악들에 대해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라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옥의 거주자들은 지상에서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명 믿음을 갖고 의로운 일을 했을 것이라고 논쟁할 것이다. 따라서 알라는 그들로 하여금 모두 지상에서 한 번 살아보면서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야만 지옥으로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했다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의 예증과 인도를 거부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지옥을 그들의 거주지로 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여 비난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현세에서 선행을 쌓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성 꾸란 싸즈다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죄인들이 그들의 주님께 그들의 고개를 숙이며 주여 저희들은 지켜 보았으며 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도록 하여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선을 행하여 믿는 자들이 되리라 하더라

성 꾸란 32:12

그러나 알라께서는 그들이 지옥에서 본 것들을 잊고 현세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죄악을 일삼고 이전과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성 꾸란 안암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그렇지 못하리니 그들이 숨겼던 것들이 그들 안중에서 밝혀지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금기된 것들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성 꾸란 6:28

26) ‘하나님께서 그 분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선지자 무함마드^ﷺ의 교우분들 이름 뒤에 존경의 표현으로 붙여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든 혹은 불신자이든 간에, 또는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모두에게 존재한다. 죄악을 멀리하고 의로움을 선택한 자들을 위해 천국을 창조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알라께서 그 분의 마지막 계시서인 성 꾸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성 꾸란 5:13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성 꾸란 5:42

실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심이라

성 꾸란 9:4

하나님은 실로 인내하는 자들을 사랑하심이라

성 꾸란 3:146

하나님께 구원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노라

성 꾸란 3:159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으며 청결을 기뻐하시니라

성 꾸란 2:222

주님은 인간에게 여러 권의 성서와 선지자들을 내려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하셨다. 결국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 성 꾸란 이므로 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선지자 무함마드^ﷺ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계시 받았다.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성 꾸란 3:31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의무적 계명을 따르는 것 외에도 스스로 우러나온 자발적 숭배에 전념을 다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그 분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죄인들에게도 또한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진실한 회개로써 귀의한다면 주님으로부터 기

꺼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셨다. 그럼으로써 현세의 모든 인류가 이를 본받아 따를 수 있게 하셨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로도 진실한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아나스^{رضي الله عنه}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전능하신 알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아담의 자손아, 그대가 나에게 요구하고 간청하는 만큼 나는 그대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며 그 잘못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 아담의 자손아, 그대의 죄가 하늘의 구름까지 달한다 해도 나의 용서를 구하면 나는 그대들을 용서할 것이다. 오! 아담의 자손아, 그대들의 죄가 대지를 가득 채울 만큼 큰 것이라 해도 나에 대해 동반자를 두지 않고 내게로 귀의한다면 그 만큼의 용서를 베풀 것이다.”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3, p.175-176, #2805

신의 은총

천국은 순전히 선행만을 기반으로 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신앙인을 천국으로 들여 놓은 궁극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님^{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 그리고 만족하라. 자기의 업적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이에 교우들이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그것은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사도님이 대답하셨다. “알라께서 자비와 은총으로 감싸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도 마찬가지다.”²⁷⁾

사히 무슬림 vol.4, p.1473, #6765

“알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행위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선행이라 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²⁸⁾

사히 무슬림 vol.4, p.1473-1474, #6770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란 제멋대로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바른 신앙과 선행을 전제로 수여된다. 성 꾸란 이므로 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선을 실천한자 그에게는 열배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끼친자 그에게는 그와 같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상되지 아니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않노라

성 꾸란 6:160

27) 아부 후라이라^{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을 따른다.

28) 아이사야^{رضي الله عنه}가 전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아주 엄밀히 계산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의 선행의 무게도 악행의 무게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의 가치를 훨씬 늘려주시며 악행은 있는 그대로만 기록하시는 방식으로 그 분의 은총을 보여주신다. 따라서 **진실한 신앙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이는 업적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업적이 물론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업적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결정적 요인으로써 업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인류 창조와 인간의 과오와 그들의 선행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정의와 은총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설정에 해당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분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 인간은 질문할 권리가 없다. 단지 이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만 추측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알라께서 스스로 가장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알라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 분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라
성 꾸란 2:255

그러므로 인간은 신과 자신을 동등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일을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나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을 수 없다. 사람들의 질문이란 끝이 없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면, 행위와 의도에 대해 질문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다. 알라께서 성 꾸란 안비야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아니하나 그들은 심문을 받니라
성 꾸란 21:23

이븐 압바스^{رضي الله عنه}는 선지자 무함마드^{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승한다.

“알라의 피조물에 대해서 숙고하라. 그러나 알라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말라”
실실라 알-아하디쓰 앗-사히하 vol.4, p.12. #1788

알라의 실재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무한대에 대해 숙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정된 우주와 그 안의 은하와 항성의 범주에 대해서도 깜짝 놀라 당황해 하는 인간의 지성이 창조주를 이해하려 시도한다면 더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선지자^{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께서는 신에 대해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신앙인들의 마음에 의심을 키우려고 시도하는 악마적 세력에 대해 경고하셨다. 아무 후라이^{رضي الله عنه}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사탄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와 질문할 것이다. ‘누가 이것과 저것을 창조했는가?’라

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누가 너의 주님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알라께 피난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말하라. 나는 알라 와 그 분의 선지자들을 믿는 나의 신앙을 확신한다.]”

사히 무슬림 vol.1, p.77, #242-243

“또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라.”

사히 무슬림 vol.1, p.77, #244
사히 알-부카리 vol.4, p.320, #496

제 2 장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고찰해본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인간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서인 성 꾸란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분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 꾸란 아으라프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이심을 증언 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도록 함이라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숭배하였을지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에 불과함일 뿐이요 그런데 무의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망하려 하심이요 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성 꾸란 7:172-3

선지자 ﷺ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알라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12달 중 9번째 달의 27일째 날에 나마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아담과 성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아담으로부터 만드셨으며 각 세대별로 주님 앞에 세워 성약을 맺으셨다. 알라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대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알라께서 주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다.”²⁹⁾

실실라 알-아하디쓰 앗-사히바 vol.4, p.158, #1623

결국 모든 인류는 개인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책임을 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선천적인 것이다. 알라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 성 꾸란의 자리야트 장에 말씀하신다.

29) 아흐마드가 수집한 하디쓰다.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성 꾸란 51:56

인류가 창조된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숭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성을 느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는 것 또한 아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 분께서는 홀로 존재하시며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으신다. 모든 피조물들은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숭배할 필요를 느끼는 자는 바로 인간이다.

숭배의 의미

인간은 왜 하나님을 숭배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숭배’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보자. 영어로 ‘숭배(worship)’라는 단어는 영광을 의미하는 weorthscipe라는 고어에서 파생되었다. 숭배란 ‘신의 영광을 위한 헌신적인 행위의 수행’이라고 정의된다.³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함으로써 그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성 꾸란의 나스르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관용을 구하라

성 꾸란 110:3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란 창조주를 자연스럽게 찬미하는 다른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한다. 성 꾸란 이스라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칠천과 대지가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니 영광으로 그분을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도다³¹⁾ 너희가 그들의 찬미를 알지 못하나

성 꾸란 17:44

숭배란 성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로 ‘이바다’라고 한다. ‘이바다’란 종을 의미하는 명사 ‘압드’와 아주 밀접히 관련된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성 꾸란에 정의된 숭배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적인 복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

30) The Living Webster Encyclopedic Dictionary p.1148

31) 천둥은 그 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 성 꾸란 13:13 –

그것들은 밤낮으로 그분을 찬양하면서도 기력이 쇠퇴하지 않더라 – 성 꾸란 21:20 –

실로 하나님은 산천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합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노라 – 성 꾸란 38:18 –

신 모든 선지자들이 가져왔던 메시지의 핵심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마태복음 7:21에 선지자 예수 عليه السلام의 가르침이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뜻’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바라시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선지자들이 가르친 계명 속에 나타나있다. 결국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숭배의 기본 원칙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찬미 역시 올바른 숭배가 된다.

숭배의 필요성

하나님이 계시하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만이 현세와 내세의 성공을 확신시켜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는 천국에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나오게 되었다. 인간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뿐이다. 메시아 예수 عليه السلام은 마태복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32> 마태복음 5:19에 의하면 예수는 계명을 엄격히 지키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은 인류의 모든 생활양식을 인도한다. 인간을 위해 옳고 그른 것을 정의해주고 만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완벽한 체계를 제시한다. 창조주야말로 홀로 피조물을 위해 은혜가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심신과 사회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와 물질을 금하거나 준수하도록 명한다.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숭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

계명이 제시하는 모든 숭배 행위는 하나님을 염원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간의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종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의 하루를 구성한다. 일상 속에서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적 욕구와 뒤섞여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먹고 일하고 잠자는 것은 매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알라께서 규칙적인 예배에 대해 성 꾸란의 따하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32) 마태복음 19:16-17

실로 내가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여 나만을 생각 하라

성 꾸란 20:14

알라께서 단식에 대해 계시하신 성 꾸란 바까라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자체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성 꾸란 2:183

신앙인들은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을 염원해야 한다. 절제란 정신적 · 물질적인 삶의 모든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계명에서 절제는 장려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염원할 때는 그 예외를 갖는다.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있어서 절제란 필요 없다. 사실상 그 정도로 많이 하나님을 염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렸다. 알라께서 성 꾸란 아흐잡장에 하나님을 대한 염원을 촉구하신다.

믿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많이 염원하라

성 꾸란 33:41

죄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저질러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을 때 악의 세력은 가장 자유롭게 활개 친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불규칙적인 생각과 욕망을 계속 주입시킴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일단 하나님의 잊혀지면 사람들은 기꺼이 타락된 행동을 일삼는다.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서인 성 꾸란 무자달라장에 이에 대해 말씀하신다.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케 하더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로 사탄의 무리는 멸망하게 되니라

성 꾸란 5:91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술과 도박을 금하셨다. 술과 도박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신은 마약과 운에 맡기는 게임 등에 쉽게 중독된다. 일단 이런 것들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욕망은 계속해서 자극받아 온갖 종류의 타락과 폭력에 빠져든다. 하나님께서 성 꾸란의 마이다장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써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

성 꾸란 5:91

결국 인류는 자기 자신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염원할 필요성을 갖는다. 누구나 죄를 저지르고 유약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을 염원할 수 있는 수단 조

차 없다면 점점 더 깊은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 모든 종류의 죄악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꾸준히 염원하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 나갈 수 있다. 이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성 꾸란 이므로 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성 꾸란 3:135

이슬람

오늘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승배**의 체계는 바로 **이슬람**이란 종교에서 발견된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라는 자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슬람이 3대 유일신주의 종교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슬람은 어떤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종교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아담 عليه السلام, 아브라함 عليه السلام, 모세 عليه السلام, 예수 عليه السلام의 종교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신 성서인 성 꾸란에는 선지자 아브라함 عليه السلام에 관한 구절이 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으며 또한 우상을 숭배한 분도 아니었노라

성 꾸란 3:67

세상에는 오직 한 분의 신만이 존재하시므로 인류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종족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종교도 오직 하나다. 하나님은 유태인과 인도인, 유럽인들을 위해 각기 다른 종교를 계시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영혼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단일한 것으로 인간 본성은 최초의 남성과 여성이 창조된 이래 불변해왔다. 따라서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 수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마지막 성서인 성 꾸란 이므로 장에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며

성 꾸란 3:19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성 꾸란 3:85

모든 행위는 곧 승배다.

이슬람 체계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승배의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다. 성 꾸란의 안암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일러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 모두가 만 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

성 꾸란 6:162

모든 행위가 승배로써 수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1. 첫째,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행위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 신앙인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알라와 마지막 사도님 ﷺ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닌지 항상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

일상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승배하는 행위로 간주되려면 아무리 간단한 행위라도 ‘비쓰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알라는 마지막 사도 ﷺ에게 모든 상황에서 먼저 ‘비쓰밀라’라고 기도하게 하셨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많은 기도문이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도님 ﷺ은 새 옷을 입을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

“오! 알라, 저에게 옷을 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주님께 이 옷의 은혜와 이 옷이 만들어질 때 생겨난 은혜를 구하오며 이 옷이 가져오는 죄악과 이 옷이 만들어 질 때 생겨난 죄악으로부터 주님의 보호를 구원합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125, #4009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2, p.760, #3393

2. 둘째, 행위는 선지자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선지자의 방식이란 아랍어로 ‘순나’라고 한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방식을 가르쳤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으므로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 진리를 받아드리는 사람만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상속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4:6에 전하는 선지자 예수 عليه السلام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은 압둘라 이븐 마수드가 전승하는 하디쓰다.

어느 날 선지자 무함마드 ﷺ께서 흙 위에 선 하나를 긋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알라의 길이다.” 그리고 나서 그 선의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 개의 선들을 [나뭇가지가 뻗쳐나가듯] 그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사탄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릇된] 길이다.” 그리고 선지자 ﷺ께서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암송하셨다.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의 길이니 그것을 따르되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 그 것은 너희들을 그분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 이니 정직하라>³³⁾

33) 성 꾸란 안암장 6:153

아흐마드 샤아키르의 알-무스나드 vol.6, p.89-90, #4142

하나님께 수락되는 유일한 숭배 방식은 바로 선지자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종교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의 죄악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무함마드 ﷺ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가장 죄악의 사태는 종교에 새로운 것이 도입되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모든 것은 저주 받고 오도된 것으로 그 종착역은 지옥이다.”

사히 무슬림 vol.2, p.410, #1885

종교 개혁은 금지된 것으로 하나님께 결코 수락되지 않는다. 사도님 ﷺ의 부인이신 아이샤 رضي الله عنها께서 전하는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의 이 문제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자는 거절될 것이다.”

사히 부카리 vol.3, p.535-536, #861

사히 무슬림 vol.3, p.931, #4266

초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오늘날 수많은 거짓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의 도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하시어 그 분의 진실한 사도가 가져온 방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숭배형태를 금하는 것이 곧 종교상의 개혁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최고의 피조물

동반자나 자손을 두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곧 최고의 피조물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항상 그것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성 꾸란 바이이나장에서 알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가장 의로운 자들로

성 꾸란 98:7

가장 큰 죄악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암둘라의 전승에 따르면 ‘알라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알라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나 여러분이 그 분에게 동반자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사히 무슬림 vol.1, p.50-51, #156

하나님 곁에 다른 것을 두어 숭배하는 것을 아랍어로 ‘**쉬르크**’라고 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가 바로 하나님 곁에 다른 것을 두어 숭배하는 죄다. 만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한다 해도 알라는 ‘쉬르크’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성 꾸란 니싸아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실로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하려 한 자를 용서치 아니하며 그 외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용서를 베푸시나

성 꾸란 4:48

하나님 곁에 다른 것을 두어 숭배한다는 것은 곧 창조주의 속성을 피조물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종교와 종파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소승 불교는 수세대에 걸쳐 사실상 신의 존재를 부인해왔다.³⁴⁾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이 세상이 시작을 갖지 않는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나간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부분은 그 시작이 있다. 부분에 대한 전체 또한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근원은 세상 속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없다. 또 그 근원은 세상이 태어난 것과는 달리 어떤 시작점을 갖지 않는다. 세상이 시작을 갖지 않는다는 무신론자의 주장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신론자의 생각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죄에 해당한다. 시작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 분의 피조물인 물질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무신론자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 댄다 한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의 공산주의 신조가 강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켜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성 꾸란 나를장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의와 거만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성 꾸란 27:14

무신론자와 유물론자에게 인생이란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결국 그들의 욕망이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될 수도 있다. 단 한 분의 진실한 신을 대신해 자신이 사람들의 숭배와 복종을 받고 싶어 한다. 성 꾸란 푸르깐장에 알라께서 말씀하신 다음

34) 고타마 부다의 사망 후 탄생된 불교의 큰 두 가지 해석 방법 중 초창기의 더 엄격한 해석을 따른 것이 소승 불교(400-250BC)다. 소승 불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바르드하마나가 체계화시킨 자이나교 역시 신의 부재를 가르친다. 단, 가르침을 따라 자유로워진 영혼은 전지적 능력과 불멸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19세기와 20세기에 수많은 유럽 철학자들은 “신학의 사망”을 선언했다. 독일 철학자 필립 마인란더(1841-1876), 프로이센 철학자 프레드릭 니체(1844-1900), 프랑스 철학자 진 폴 사르트르(1905-1980) 등은 신의 부재를 주장했다. -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p.72, 226, 263, 327, 508, 509 -

구절을 보자.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는 자를 보았느뇨

성 꾸란 25:43

기독교는 선지자 예수 عليه السلام에게 창조주의 속성을 부여한다. 먼저 예수를 신과 동등한 영원한 존재로 묘사한다.³⁵⁾ 그리고 나서 예수 عليه السلام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여 신이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힌두교는 수세대에 걸쳐 ‘아바타’라고 불리는 화신을 통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힌두교는 주요 3신에게 신의 속성을 골고루 나누어준다. 브라마는 창조주, 비쉬누는 양식을 주시는 분, 쥐바는 파괴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아랍어 ‘쉬르크’란 하나님 곁에 다른 것을 두어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두려움이 알라에 대한 그것보다 더 클 때 ‘쉬르크’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성 꾸란 바까라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그러나 무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강하도다

성 꾸란 2:165

사랑, 신뢰, 두려움 등의 감정을 피조물에 대해 더 많이 품을 때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염원하는데 점점 소홀하게 된다. 그러나 오직 알라만이 인간의 모든 감정의 몰입을 받으실 수 있다. 모든 피조물 보다 훨씬 사랑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알라이시기 때문이다. 아나스 이븐 말리크 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을 따른 선지자 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지닌 자는 신앙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첫째, 알라와 그 분의 사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알라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라로부터 구원 받은 후 다시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사히 무슬림 vol.1, p.30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피조물을 사랑하는 모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피조물 보다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생명과 성공을 사랑하고 죽음과 실패를 싫어한다. 알라만

35)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요한 복음 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요한복음 1:14 -

이 생명과 성공의 궁극적 원천이므로 그 분이야말로 인류의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인간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과 은혜를 주는 자를 사랑한다. 모든 은혜(성 꾸란 7:188)와 도움(성 꾸란 3:126)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사랑받으셔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헤아려 보려하나 헤아릴 수 없으니

성 꾸란 14:34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지고한 사랑이 다른 피조물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사랑의 개념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과 동등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³⁶⁾ 알라를 향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한다. 성 꾸란의 다음 구절을 보자.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³⁷⁾를 따를 것이라

성 꾸란 3:31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랑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의 의미를 내포한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알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라의 사랑을 받는 자를 중오하고 알라의 분노를 얻은 자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부 우마마^{رضي الله عنه}가 전승하는 사도님^{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알라를 위해 사랑하고 알라를 위해 싫어하며 알라를 위해 인내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완성하였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312, #3644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3, p.886, #3915

올바른 신앙인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성 꾸란 마리아장에 알라께서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의로운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노라

36)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방치한 채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는 현상은 20세기에 나타난 커다란 범죄다.

37) 하나님의 최후의 선지자^{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아부 후라이라 رَضِيَ اللَّهُ عَنْهُ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알라께서 어떤 종복을 사랑하시면 주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 종복을 사랑하시니 천사 가브리엘도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은 그 종복을 사랑한다. 그런 후 가브리엘은 천국의 모든 거주자들을 불러 모아 알라께서 어떤 종복을 사랑하시니 다 함께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천국의 거주자들도 모두 그 종복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 종복은 지상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91, #431

사히 무슬림 vol.4, p.1385, #6373

기도

기도는 훌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주님에게 구원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에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성 꾸란 2:186

사도님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알라께 구원하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알라께 도움을 구하라.”³⁸⁾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2, p. 308-309, #2043

안-나와위 하디쓰 40선 p.68, #19

마쉬카트 알-마사비 vol.2, p.1099

고인이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는 것과 누군가를 통해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쉬르크**’(알라 곁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에 해당한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를 숭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누마안 빈 바쉬르는 사도님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기원은 숭배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387, #1474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1, p.277, #1312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들도 너희와 같은 종들이라

38) 이븐 암바스 رَضِيَ اللَّهُ عَنْهُ의 전승을 따른다.

천주교에서 성인에게 기도하는 관습 또한 ‘**쉬르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잊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테베의 성 안토니우스에게 기도 한다.³⁹⁾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혼을 성사시키려 하거나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중재를 위해 불가능한 것의 수호성인 성 유다 타테우스에게 기도한다.⁴⁰⁾ 여행길에 나서면 여행자의 수호성인 성 크리스토퍼에게 보호를 구한다. 그러나 1969년 성 크리스토퍼는 교황령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의 목록을 삭제하였다.⁴¹⁾ 미가엘 축일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 역시 모두 ‘**쉬르크**’의 한 형태다.⁴²⁾ 성인 숭배를 금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선지자 예수 عليه السلام에게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 기도함으로써 같은 ‘**쉬르크**’의 죄를 반복한다. 만일 무슬림이 선지자 무함마드 ﷺ에게 기도한다면 이 또한 ‘**쉬르크**’의 죄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무함마드 ﷺ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추종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성 꾸란 아으라프장의 구절이다.

일러가로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없으며 해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내게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나는 더하여 복을 받았으며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없었으리라

아부 후라이라 ﷺ가 전하는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⁴³⁾라는 말씀이 계시되자 그분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꾸라이쉬 백성들이여, [선행을 함으로써] 알라로부터 구원을 얻으라. 나는 알라께 대항하여 여러분을 구할 수 없다. 오!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나에게 [현세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그러나 알라에 대항해 너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478-479. #727-728

사히 무슬림 vol.1, p.136, #402

39) The World Book Encyclopedia vol.1, p.509

40) The World Book Encyclopedia vol.11, p.146

41) The World Book Encyclopedia vol.3, p.417

42) 서방 교회는 9월 29일, 그리스정교는 11월 8일에 대천사 성 미가엘을 기념하는 축제를 연다. 천주교는 이 날을 ‘대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축제’라고 부르며 영국국교회는 ‘성 미가엘과 모든 천사들의 축제’라고 부른다.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8, p.95 -

43) 성 꾸란 슈아라장 26:214

제 3 장

지상에 인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간 창조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포함한 의미로 확장시켜 보자. “세상에 인류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신 성서인 성 꾸란의 물크장과 카흐프장에서 간단히 얻을 수 있다.

죽음과 생명을 제정하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성 꾸란 67:2

실로 하나님은 대지 위의 모든 것을 장식으로 두었을 뿐 이는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홀륭한 가를 시험코자 함이라

성 꾸란 18:7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의 행위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다.⁴⁴⁾ 사악한 영혼으로부터 의로운 영혼을 가려내기 위해 현세의 삶과 죽음, 부와 가난, 질병과 건강 등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행위는 그의 신앙을 말해주는 척도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시험하신다고 해서 그 인간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분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알고 계셨다. 인간이 치르는 현세의 시험은 심판의 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별이 정당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것임을 확증시키기 위함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행위의 시험이란 다음의 두 가지 근본 목적을 갖는다. 첫째, 시험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둘째, 시험의 결과에 따른 보상과 별을 받을 수 있다.

44) 성 꾸란 후드장 11:7 참조

정신적 성장

현세의 시험은 주로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위한 것이다. 격렬한 불꽃이 자연 속의 거친 광석으로부터 순수한 금을 분리시키듯 시험을 통해 신앙인의 도덕성은 정화된다. 시험을 통해 신앙인은 저급한 욕망을 딛고 일어나 더 높은 정신적 자질을 성취한다.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해도 심지어 시험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더라도 그는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는 정신적 교훈을 배우면서 성장한다.

관용과 만족

모든 인간 사회는 관용을 베풀고 자기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을 가장 고귀한 덕성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한다면 이러한 자질은 성장할 수 없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 할 때 인간의 영혼이 재물을 축적하려는 욕망에 대항하여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관용**이라는 자질이 성장한다. 한편 **만족**이란 영혼이 질투와 탐욕의 죄악과 싸워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덕성이다. 지혜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정신적 투쟁의 단계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양의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열을 두셨노라

성 꾸란 16:71

탐욕과 인색은 인간의 선천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타락된 형태다. 신앙인은 재산이란 하나님의 의탁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재물이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 존재했으며 인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계명에 따라 쓰인 재산은 현세와 내세에 은혜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쓰인 재산은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요, 내세에서는 벌을 부르는 저주다. 성 꾸란 안팔장에 하나님께서 재산과 자손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신다.

너희 재산과 자손들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나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니라
성 꾸란 8:28

하나님은 재산과 자손으로 인해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하라고 권고하신다. 이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성 꾸란 무나피쿤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재물과 너희 자손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염원함에 벗어나서는 아니되나니

성 꾸란 63:9

너희 가운데 무리를 다른 무리 위에 두었더라

성 꾸란 6:165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을 현세에서 만족시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인간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재물을 원하다.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인간에게 금으로 가득 찬 계곡 하나가 주어진다면 그는 다른 계곡 하나를 더 원할 것이다. [자기 무덤의] 흙을 제외한 어떤 것도 인간의 입을 다 채울 수 없다. 알라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97-298, #447

자기 재산을 자선으로 사용할 때 부정적 욕망은 비로소 극복된다. 그래서 알라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추종자들 중에서 더 부유한 자에게 더 많은 자선을 걸어 가난한 자를 돋는데 쓰라고 명하셨다.

그들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 받으라 그로하여 너희는 그들을 정화하고 순화하며
성 꾸란 9:103

이슬람은 자선을 의무 회사(아랍어로 자캇이라고 함)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그 실행을 규정했다. 모든 신앙인들은 매년 잉여 재산에 대한 일정 뜻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자켓을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숭배의 행위다. 그러나 자켓의 지불을 무시하면 대죄의 하나로 간주된다. 신앙인은 자선금을 내면서 재산이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은 단순히 재산의 일시적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 일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배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신앙인이란 자기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로 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필요로 한 자와 요구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뜻을 베푸는 자라

성 꾸란 51:91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자선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선금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지불되어야 한다. 세속적 이득을 위해 자선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알라께서 성 꾸란 바까라장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회사를 상기시키거나 모욕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성 꾸란 2:264

질투는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부추긴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바라지 말라고 명하셨다. 성 꾸란 니싸아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많이 받는 자가 있나니 시기하지 말라

성 꾸란 4:32

사도님께서 자주 반복하신 충고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알라께서 축복해주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보다 더 복 받은 자를 보지 말며 덜 복 받은 자를 보아라.”

사히 알-부카리 vol.8, p.328, #497

사히 무슬림 vol.4, p.1530, #7070

자기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자를 의식하면 질투심이 생겨난다. 그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 종국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취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슬람은 자기보다 덜 복 받은 사람들을 숙고하라고 충고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항상 더 힘든 상황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떠올린다. 질투를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신적 투쟁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이라는 자질이 생겨난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세의 진정한 부는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 아무 후라이라 رضي الله عنه가 전하는 마지막 사도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부는 재산이 아니라 만족에 있다.”

사히 알-부카리 vol.8, p.304, #453

만족이란 어떤 상황이라도 체념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만족한다는 것은 훌륭한 삶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후 알라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으로써 현세의 즐거움을 갈망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마음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성 꾸란의 라아드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실로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이 평안하니라

성 꾸란 13:28

재난

현세에 주어진 시험은 ‘불운’이나 재난의 형태로도 찾아온다. 이 또한 진실한 신앙인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하며 그들의 죄를 정화시킨다. 역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에게는 올바른 길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불신자에게 재난은 내세의 응벌에 앞서 시작된 현세의 별이 된다.

인내

재난을 겪으면서 더 높은 정신적 자질인 인내심을 배양하는 기초를 쌓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생애 동안 여러 비극적 상황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드^{رضي الله عنه}는 사도님^{صلوات الله عليه}께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련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사드가 전승하는 사도님^{صلوات الله عليه}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선지자들이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다. 선지자와 가장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또 그들과 가장 비슷한 행동으로 닮았던 사람들이 세 번째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인간은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 시험 받는다.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는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신앙이 약한 자는 그에 따라 시험 받을 것이다.”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2, p.286, #1956

고난의 시기에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의 산물이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숭배의 중요한 측면으로 참신앙심만이 낳을 수 있는 자연스런 결과다. 알라를 믿는다는 것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알라의 허락 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오직 알라만이 인류의 완벽한 신뢰를 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는 천성 때문에 항상 서로를 실망시키기도 한다. 알라께서 성 꾸란 요셉장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실로 명령은 하나님께만 있노라 그려므로 나는 그분에게만 의존하며 의탁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게 위탁하도록 하리라

성 꾸란 12:67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에 알라에 대해 완벽한 신뢰를 갖는 사람은 알라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누구든 하나님으로써 충분하니라

성 꾸란 65:3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알라만이 홀로 인류를 위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기도 하다. 성 꾸란 바까라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그러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알라께서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주시는 시련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맞게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에 따라 최상의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한 시련을 주신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큰 시련이 주어져 해결하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하여 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한 분이 아니시다. 성 꾸란 카흐프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실로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 하노라

성 꾸란 18:49

알라는 진실로 정의로우시므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시련을 주신다. 성 꾸란 바까라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

성 꾸란 2:286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정을 주는 휴식기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다. 시련만 계속해서 연속된다면 인간은 분명 이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험은 휴식기를 동반한다.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보자.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실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 꾸란 94:5-6

절망

이슬람에서 자살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알라께서 성 꾸란 니싸아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또 너희 자신들을 살해치 말 것이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성 꾸란 4:29

자살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짐을 지우셨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당한 창조주라고 비난하며 불신하는 타락 상태에 빠진다. 그들은 신앙을 거부하였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고 역시 사악한 것이며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진다. “인생이란 너무 부당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라고 종종 말하기도 한다.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치 아니 하나니 불신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 하니라

성 꾸란 12:8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사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성 꾸란의 파트흐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증하는 남성과 여성 남성의 불신자와 여성의 불신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악한 억측을 하는 자에게 응별을 내리시니 사악한 것들이 그들 주변을 맴도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여워 하사 그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여 두셨으니 사악함이 그들의 운명이라

성 꾸란 48:6

희망

반면 정의와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인에게 현세의 고난을 인내하며 대처해 가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필수 요건이다. 알라를 믿고 인내하며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한 희망을 갖는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믿는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편에 있노라
성 꾸란 2:153

믿음을 가진자 이주를 한 자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니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성 꾸란 2:218

천국이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케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것
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리라
재앙이 있을 때 오 주여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성 꾸란 2:155-156

인내란 어떤 재앙이 닥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사악한 행위에 기인한다는 믿음에 기초한다.⁴⁵⁾ 하나님께서 성 꾸란의 슈아라장에 계시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45) 알라께서 성 꾸란 30:4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사실상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악은 인간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얻은 것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들 대다수를 용서하고 계시니라

성 꾸란 42:30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여러 사악한 행위들을 용서하셨다. 만일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행위에 따라 엄격히 벌하신다면 지상 위에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 꾸란 파티르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인간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케 하신다면 땅 위에 어떤 생물체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

성 꾸란 35:45

때로는 복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찾아오는 시험이란 결과적으로 신앙인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진실한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행동 사이에서 중庸을 지키게 한다. 진실한 신앙인은 성공한 인생을 너무 만끽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염원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무 낙담해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은혜로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분의 결정을 신뢰한다. 이어 계속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수하이브 이븐 시나안이 전한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것이다. 오직 신앙인에게만 전 생애가 유익한 것이다. 좋은 시기가 오면 그는 감사하고 그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고난의 시기가 도래해도 그는 인내하며 그 상황이 그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히 무슬림 vol.4, p.1541, #7138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을 받아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복된 것과 곁으로 보기에 재앙인 듯한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이슬람의 여섯 번째 기둥이다.

반면 어떤 신앙인이 아무런 고난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이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진실한 신앙인은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의 실체를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험을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 알라께서 성 꾸란 타우바장에 불신자들이 취한 막대한 재산과 자손이 주는 즐거움은 단지 그들에게 있을 별의 서막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재산과 자손이 그대를 놀라게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별을 주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고 그들은 불신자가 되니라

성 꾸란 9:85

그러나 신앙인이 자기 삶에 문제와 재난이 일어나도록 갈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알라는 신앙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

성 꾸란 2:286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에 고난을 바라는 대신, 알라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시련이 무엇이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안한 시기가 오면 신앙인은 방심하지 않고 시험을 염두해 둔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과 성공의 시기를 맞이하면 삶의 시련에 대해 쉽게 잊어버린다.

상기 수단

때로 시험이란 이미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미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재난에 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지인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최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과오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가장 큰 별에 앞서 가까운 현세의 별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속죄하기 위함이라

성 꾸란 32:21

탈선을 일삼는 인류에게 그들의 잘못을 상기시켜주는 재앙이라는 시험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자행한 비인간적인 형태로 찾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무슬림에 대해 저지른 잔혹한 대량 살상,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뒤따른 미국의 이라크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 등이 있다. 알라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손에 의해 고통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신다. 그러나 고통은 의로운 길로의 귀환을 상기시켜주는 수단이다.

인간의 손이 저지른 부폐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했나니 그들이 행했던 일부를 맛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니

성 꾸란 30:41

위선

거짓으로 신앙인인 척 가장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자유의지로 불신의 길을 택한 불신자들은 재난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보다 더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곤 한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 꾸란 안카부트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신다.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만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사람들을 생각하느뇨
하나님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도 시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
을 말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성 꾸란 29:2-3

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범주를 넘어선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스스로 별을 재촉한다. 성 꾸란에 알라께서는 고대의 수많은 나라들이 알라의 인도를 거부하여 결국 멸망을 초래했다고 말씀하신다. 그 일화들은 계명을 거역한 자들의 말로를 말해주는 경고다. 성 꾸란의 누르장에 알라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다.

그리므로 그분의 명령에 거역한 자를 경계할지니 이는 그들 위에 시련이 이르지 아니
하고 그들 위에 고통스러운 별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성 꾸란 24:63

별이 내리는 방식은 다양하다. 오늘날 인류를 덮친 가장 분명한 응별은 바로 에이즈라는 질병이다.⁴⁶⁾ 의학의 역사는 80년 대 초 처음 에이즈가 발병했다고 말한다.⁴⁷⁾ 전 세계에 걸쳐 에이즈에 감염된 대다수의 환자들은 성 관계가 문란하다. 초기에는 동성애자들이 주로 감염되었고 그 후 양성애자가 감염되었으며 나중에는 성 관계가 문란한 이성애자들과 마약을 하기 위해 정액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남녀의 제한된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에 공공연한 반역을 꾀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즈가 부모에 의해 자녀에게 전염되거나 수혈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의학적 통계상 이는 앞서 나열한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확률에 불과하다. 알라의 응별이 시작되면 그것은 사악한 자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염습한다. 성 꾸란 안팔장의 다음 구절을 보자.

유혹을 멀리하라 너희 가운데 우매한 자만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며 실로 하나님의 별
이 강하심을 너희가 알라 하셨노라

성 꾸란 8:25

1400년 전, 선지자 무함마드^ﷺ께서 이러한 시련의 도래를 예언하셨다. 이븐 우마르가 전승하는 선지자님^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46)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란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체 면역 체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전염된 상태다. 에이즈에 걸리면 병에 대해 극도로 무기력하므로 어떤 병에 걸리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다. - Chambers Pocket Dictionary, p.19 -

47) 1981년 첫 에이즈가 감지되었다.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10, p.676 -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난교가 성행하면, 선대 민족은 겪지 않았던 새로운 채양과 고통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사히 수난 이븐 마아자 vol.2, p.370, #3246

그러나 에이즈는 계속 이어지는 여러 질병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에이즈 이전에 앞서 하나의 경고로써 포진이라는 병이 엄습했던 적이 있었다. 포진은 60년대와 70년대 초 성관계가 문란한 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성병이다. 70년대 중반 미국은 포진을 전염병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70년대가 지나자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치명적⁴⁸⁾이지 않은 포진보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에이즈로 향하게 되었다.

48) 포진에 걸리면 열이 나고 스스로한 느낌을 갖기 시작하다가 성기 부분이 불타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끼며 림프 결절이 확장된다. 감염 부위에는 물집과 작은 종기가 자주 생기며 소변 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불타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고통 받는다.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21, p.536 -

제 4 장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인간과 관련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 꾸란의 아브라함장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게하여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였노라 또한 너희를 위해 우주를 주관하시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운행케 하고 강이 너희에게 유용케 하셨더라
그분은 해와 달이 항상 그 운행을 지키게 하여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며 밤과 낮을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니라

성 꾸란 14:32-33

그분은 또한 아침을 두었으되 밤을 두어 쉬게 하였으며 태양과 달을 두어 시간을 알도록 하셨으니 그것이야말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배열이시라
하나님은 또한 별들을 두어 육지와 바다의 어두운 영역을 그것으로 하여 너희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니 그분은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해 말씀을 세분화 하셨노라

성 꾸란 6:96-97

이 세상 안에 모든 것들은 인간의 위해 창조되었다. 배와 같은 인간의 발명품이든 혹은 자연 그 자체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수여하신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런 책임 없이 이 선물들을 수여 받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알라의 은혜와 자비를 인식하고 감사를 드리며 찬미해야 한다. 알라께서 성 꾸란의 주크루프장에 신앙인들로 하여금 교통 수단이나 동물을 탈 때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다.

이리하여 너희가 등위에서 안정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앓아 있을 때 너희 주님을 염원하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희에게 순종케 하여 주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라고 말하고
저희는 저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함이라

성 꾸란 43:13-14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피조물을 사용한 책임을 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인간은 세상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용하라는 명을 받았다. 아부 사이드 알-쿠드리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세상은 아름답고 푸르다. 가장 높이 계신 알라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대리인으로 두시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바를 지켜보고 계신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2, #6606

인간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전부 이용할 수 없다. 세속적 · 유물론적 사회가 자연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다. 유물론적 사회는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에베레스트 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정상에 오르는 ‘**정복**’을 감행하다가 해마다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곤 한다. 이국적 동물을 보고 감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 수렵으로 얼룩진 지난 세기 동안 무수한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서구식 거실에 기념품의 수는 늘어만 갔다. 현재 사냥은 금지되었으나 코뿔소 등은 여전히 동양의 전통 약제와 최음제의 원료로 쓰이는 뿐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동물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성 꾸란에 의하면 여가 활동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의 행동이다. 이븐 압바스 رضي الله عنه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과녁 삼아 잡지 마라.”⁴⁹⁾

사히 무슬림 vol.3, p.1079, #4813

살아 있는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식용과 인간 사회의 보호와 의복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다. 재미로 죽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악이다. 심지어 사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사형시키거나 동물의 생명을 식량으로 도살하는 것도 가능한 고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샷다드 이븐 아우스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알라께서 모두를 위해 선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할 것이며, 동물을 도살할 때도 올바른 방법을 따르라. 여러분 모두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 동물이 안락하게 죽을 수 있게 하라.”

사히 무슬림 vol.3, p.1078, #4810

49) 히샴 빈 자히드가 전하는 바로 그와 그의 아버지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하캄 이븐 아이웁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 암탉 한 마리를 과녁 삼아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나스는 알라의 사도님 ﷺ께서 동물을 과녁으로 삼아 사냥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말해 주었다. - 사히 무슬림 vol.3, p.1078, #4182 -

서구 사회의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이슬람식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식을 반대한다. 그러나 서구인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 충격이나 머리까지 구타하는 방식은 동물에게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아주 날카로운 칼로 순간적으로 목을 자르면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피는 심장의 박동으로 인해 경동맥 밖으로 품어져 나온다.

동물에 대한 배려는 계명에 기술되어 있다. 심지어 일반적인 무슬림 가정 안에 출입이 금지된 개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⁵⁰⁾ 아부 후라이라 رضي الله عنه가 전승하는 선지자님 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매우 목이 말랐다. 그는 우물 아래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밖으로 나오자 갈증에 허덕이는 개 한 마리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진흙을 훑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동물도 방금 전의 나처럼 몹시 목이 마르구나.’ 그 남자는 다시 우물 아래로 내려가 신발에 물을 가득 담았다. 물을 담은 신발을 이로 꽉 물고 힘겹게 다시 우물 밖으로 기어 올라와 물을 개에게 마시게 했다. 알라께서는 그 남자의 선행에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

사히 알-부카리 vol.1, p.120, #174

사람들이 선지자님 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께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사도님께서 답하셨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친절을 베풀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

사히 알-부카리 vol.3, p.322-323, #551

사히 무슬림 vol.4, p.1215-1216, #5577

알라의 사도님 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의 말씀에 대한 아부 후라이라 رضي الله عنه의 또 다른 전승은 다음과 같다.

“알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떤 매춘부를 용서하셨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448-449, #673

“그녀는 신발을 스카프에 묶어 그 안에 물을 [우물로부터] 담아 올려 개에게 마시게 했다. 그 선행으로 인해 알라는 그녀를 용서하셨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338-339, #538

사히 무슬림 vol.4, p.1216, #5579

역으로 동물을 해치는 것은 이슬람의 법에 따라 대죄에 속한다. 암둘라 이븐 우마르가 전

50) 무슬림은 개를 애완동물로써 기르는 것이 장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을 지키는 개와 양치기 개와 사냥개를 기르는 것은 허용된다. 이븐 우마르가 전승하는 알라의 사도님의 말씀 صلوات الله عليه وآله وسالم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가축 뼈를 지키거나 사냥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개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일상의 업적으로 부터 산 두 채에 해당하는 무게를 잃는 것과 같다.” – 사히 무슬림 vol.3, p.826, #3815 –

승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어떤 여자가 지옥에 들어가 벌을 받았다.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을 때까지 감금해 두었기 때문이다. 조금의 음식도 물도 주지 않았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쥐 같은 동물도 잡아먹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456, #689
사히 무슬림 vol.4, p.1215, #5573

동물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 불가결한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축 뼈를 때려서 이동시키거나 서로 구별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동물을 보호하라고 명하셨다.

자비르는 선지자님 ﷺ께서 동물의 얼굴을 때리거나 동물들의 얼굴에 소인을 찍는 것을 금하셨다고 전한다.

사히 무슬림 vol.3, p.1163, #5281

식물

세상을 돌보아야 할 인간의 책임은 동물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명에 따르면 식물의 왕국 또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한 이유로 전쟁에 출전한 무슬림은 과일 나무를 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⁵¹⁾ 심지어는 나무를 심는 행위도 자선의 행위라고 간주된다. 자비르가 전하는 알라의 사도님 ﷺ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어떤 무슬림이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자선을 행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누군가 그 나무의 열매를 섭취하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선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누군가 그 나무에서 뭔가를 가져가도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자선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물이나 새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선을 한 것으로 보상받는다.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라도 그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자선을 행한 보상을 받는다.”

사히 무슬림 vol.3, p.818, #3764

이슬람은 나무를 심는 것을 장려한다. 나무를 심는 일은 현세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다지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나스는 선지자님 ﷺ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부활의 날이 시작되는 예증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은 손에 한 그루의 묘목

51) 무와타 이맘 말리크, p.200, #958, 알-알바아니 이르와아 알-갈릴 vol.5, p.13-14, #.1190

을 들고 있다가 부활이 시작되기 막 전까지라도 그 묘목을 심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알-무스나드 vol.3, p.183-184, 191

알-부카리의 알-아답 알-무프라드 #479

알-알바니의 시실라 알-아하디쓰 앗-사히하 vol.1, p.11, #9

결론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키 없이 바다로 나간 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전 생애 동안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된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어긋난 종교적 가르침으로 인해 그릇되거나 현세에만 한정된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알라께서는 그 분의 속성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결국 창조란 창조주가 존재하심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천국은 창조주의 자비와 은총을 나타내고 지옥은 창조주의 정의를 드러낸다. 인간의 실수는 곧 창조주의 용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생물과 무생물의 존재는 주님의 관용을 보여준다. 창조란 알라께서 그 분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수단이다. 인간은 이를 인지할 때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분의 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아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신 성 꾸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숭배함으로써 인류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로움과 정신적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숭배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베푸는 것이 절대 아니다. 숭배는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고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숙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현세의 은혜와 시련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 현세에서의 주어진 은혜와 시련이 창조된 이유를 모른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복과 재난으로 치르는 시험을 통해 인간은 더 높은 정신적 자질을 얻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 인내하지 못한다면 이런 시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도출해 낼 수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현세는 내세에 있을 영원한 응별에 앞서 시작되는 별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창조된 목적을 맑으로써 신앙인은 주위 환경을 인지할 수 있다. 인류는 현세에 주어진 은혜를 공정하게 활용해야 할 책임을 진다. 육지와 바다에 산재하는 생명체들과 식물과 대기는 인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을 보존하고 가꿔 나가야 하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수단으로써 여겨야 한다.

여러 가지 창조의 목적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가질 때 인류는 하나 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류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의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알라께서 성 꾸란에 이를 인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가장 좋은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성 꾸란 3:110

하디쓰 목록

“가장 최악의 사태는 종교에 새로운 것이 도입되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모든 것은 저주 받고 오도된 것으로 그 종착역은 지옥이다.”

사히 무슬림 vol.2, p.410, #1885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⁵²⁾라는 말씀이 계시되자 그분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꾸라이쉬 백성들이여, [선행을 함으로써] 알라로부터 구원을 얻으라. 나는 알라께 대항하여 여러분을 구할 수 없다. 오!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 나에게 [현세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그러나 알라에 대항해 너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478-479. #727-728

사히 무슬림 vol.1, p.136, #402

“기원은 송배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1, p.387, #1474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1, p.277, #1312

“누구든지 가축 떼를 지키거나 사냥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개 한 마리를 기르는 것은 일상의 업적으로부터 산 두 채에 해당하는 무게를 짊는 것과 같다.”

사히 무슬림 vol.3, p. 826, #3815

“누구든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지닌 자는 신앙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 첫째, 알라와 그 분의 사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알라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라로부터 구원 받은 후 다시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사히 무슬림 vol.1, p.30

“만일 여러분이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아 알라께 귀의하여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알라께서는 여러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알라의 용서를 간구하는 백성이 될 것이며 알라께서는 이에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5-1436, #6621

52) 성 꾸란 슈아라장 26:214

“만약 인간에게 금으로 가득 찬 계곡 하나가 주어진다면 그는 다른 계곡 하나를 더 원할 것이다. [자기 무덤의] 흙을 제외한 어떤 것도 인간의 입을 다 채울 수 없다. 알라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사히 알 부카리 vol.8, p.297-298, #447

“모든 인류가 서로 모여 여러분을 도우려 노력한다 해도 알라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기록해 두신 만큼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모두 모여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 해도 그들은 이미 알라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기록해 두신 만큼만 해를 끼칠 수 있다.”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2, p.308-309, #2043

“부는 재산이 아니라 민족에 있다.”

사히 알-부카리 vol.8, p.304, #453

“부활의 날이 시작되는 예증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은 손에 한 그루의 묘목을 들고 있다가 부활이 시작되기 막 전까지라도 그 묘목을 심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알-무스나드 vol.3, p.183-184, 191

알-부카리의 알-아답 알-무프라드 #479

알-알바니의 시실라 알-아하디쓰 앗-사히하 vol.1 p.11, #9

사람들이 선지자님 ﷺ께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사도님께서 답하셨다.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친절을 베풀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

사히 알-부카리 vol.3, p.322-323, #551

사히 무슬림 vol.4, p.1215-1216, #5577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난교가 성행하면, 선대 민족은 겪지 않았던 새로운 재앙과 고통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사히 수난 이븐 마아자 vol.2, p.370, #3246

“사탄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와 질문할 것이다. ‘누가 이것과 저것을 창조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누가 너의 주님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알라께 피난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말하라. 나는 알라와 그의 선지자들을 믿는 나의 신앙을 확신한다.]”

사히 무슬림 vol.1, p.77, #242-243

“또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라.”

사히 무슬림 vol.1, p.77, #244

사히 알-부카리 vol.4, p.320, #496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과녁 삼아 잡지 마라.”

사히 무슬림 vol.3, p.1079, #4813

“선지자들이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다. 선지자와 가장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또 그들과 가장 비슷한 행동으로 닮았던 사람들이 세 번째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인간은 자기 신앙 수준에 따라 시험 받는다.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는 혹독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신앙이 약한 자는 그에 따라 시험 받을 것이다.”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2, p.286, #1956

“세상은 아름답고 푸르다. 가장 높이 계신 알라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대리인으로 두시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바를 지켜보고 계신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2, #6606

“신앙인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것이다. 오직 신앙인에게만 전 생애가 유익한 것이다. 좋은 시기가 오면 그는 감사하고 그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 고난의 시기가 도래해도 그는 인내하며 그 상황이 그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히 무슬림 vol.4, p.1541, #7138

“알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행위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사히 무슬림 vol.4, p.1473-1474, #6770

“알라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12달 중 9번째 달의 27일째 날에 나마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아담과 성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아담으로부터 만드셨으며 각 세대별로 주님 앞에 세워 성약을 맺으셨다. 알라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대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알라께서 주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다.”

실실라 알-아하디쓰 앗-사히바 vol.4, p.158, #1623

“알라의 피조물에 대해서 숙고하라. 그러나 알라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말라”

실실라 알-아하디쓰 앗-사히하 vol.4, p.12. #1788

“알라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알라께서 그 분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고 보관하고 계신다: 나의 자비는 나의 분노를 압도한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7, #6628

“[알라께서 창조하신] 자비는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개의 자비가 진과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 내려왔다. 그 1개의 자비로 인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동물들도 새끼에게 사랑으로 대한다. 심판의 날이 되면 알라께서 나머지 99가지 자비를 그 분의 진실한 승배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사히 무슬림 vol.4, p.1437, #6631

“알라께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셨으며 각각의 거주자들 또한 창조하셨음을 알지 못하는가?”

사히 무슬림 vol.4, p.1400, #6435

“알라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나 여러분이 그 분에게 동반자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사히 무슬림 vol.1, p.50-51, #156

“알라를 위해 사랑하고 알라를 위해 싫어하며 알라를 위해 인내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완성하였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312, #3644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3, p.886, #3915

“알라께서 어떤 종복을 사랑하시면 주님은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 종복을 사랑하시니 천사 가브리엘도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은 그 종복을 사랑한다. 그런 후 가브리엘은 천국의 모든 거주자들을 불러 모아 알라께서 어떤 종복을 사랑하시니 다 함께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천국의 거주자들도 모두 그 종복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 종복은 지상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91, #431
사히 무슬림 vol.4, p.1385, #6373

“알라께서 축복해주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보다 더 복 받은 자를 보지 말며 덜 복 받은 자를 보아라.”

사히 알-부카리 vol.8, p.328, #497
사히 무슬림 vol.4, p.1530, #7070

“알라께서 모두를 위해 선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야 한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할 것이며, 동물을 도살할 때도 올바른 방법을 따르라. 여러분 모두는 칼을 날카롭게 갈아 동물이 안락하게 죽을 수 있게 하라.”

사히 무슬림 vol.3, p.1078, #4810

“알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떤 매춘부를 용서하셨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448-449, #673

“그녀는 신발을 스카프에 묶어 그 안에 물을 [우물로부터] 담아 올려 개에게 마시게 했다. 그 선행으로 인해 알라는 그녀를 용서하셨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338-339, #538
사히 무슬림 vol.4, p.1216, #5579

“오! 알라, 저에게 옷을 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주님께 이 옷의 은혜와 이 옷이 만들어질 때 생겨난 은혜를 구하오며 이 옷이 가져오는 죄악과 이 옷이 만들어질 때 생겨난

죄악으로부터 주님의 보호를 구원합니다.”

수난 아부 다우드 vol.3, p.1125, #4009
사히 수난 아비 다우드 vol.2, p.760, #3393

어느 날 선지자 무함마드^ﷺ께서 흙 위에 선 하나를 굿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알라의 길이다.” 그리고 나서 그 선의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 개의 선들을 [나뭇가지가 뻗쳐나가듯] 그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사탄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릇된] 길이다.” 그리고 선지자^ﷺ께서 다음의 성 꾸란 구절을 암송하셨다.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의 길이니 그것을 따르되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을 그분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정직하라>

아흐마드 샤아키르의 알-무스나드 vol.6, p.89-90, #4142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매우 목이 말랐다. 그는 우물 아래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시고 밖으로 나오자 갈증에 허덕이는 개 한 마리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진흙을 핥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동물도 방금 전의 나처럼 몹시 목이 마르구나.’ 그 남자는 다시 우물 아래로 내려가 신발에 물을 가득 담았다. 물을 담은 신발을 이로 꽉 물고 힘겹게 다시 우물 밖으로 기어 올라와 물을 개에게 마시게 했다. 알라께서는 그 남자의 선행에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

사히 알-부카리 vol.1, p.120, #174

“어떤 여자가 지옥에 들어가 벌을 받았다. 그녀는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을 때까지 감금해 두었기 때문이다. 조금의 음식도 물도 주지 않았으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쥐 같은 동물도 잡아먹지 못하도록 끓여 놓았다.”

사히 알-부카리 vol.4, p.456, #689
사히 무슬림 vol.4, p.1215, #5573

“어떤 무슬림이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자선을 행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누군가 그 나무의 열매를 섭취하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선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누군가 그 나무에서 뭔가를 가져가도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자선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물이나 새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선을 한 것으로 보상받는다.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이라도 그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자선을 행한 보상을 받는다.”

사히 무슬림 vol.3, p.818, #3764

“우리들의 이 문제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자는 거절될 것이다.”

사히 부카리 vol.3, p.535-536, #861
사히 무슬림 vol.3, p.931, #4266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알라께 구원하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알라께 도움을 구하라.”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2, p. 308-309, #2043
안-나와위 하디쓰 40선 p.68, #19

마쉬카트 알-마사비 vol.2, p.1099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 그리고 만족하라. 자기의 업적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이에 교우분들이 질문하였다. “오! 알라의 사도님, 그것은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사도님이 대답하셨다. “알라께서 자비와 은총으로 감싸 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도 마찬가지다.”

사히 무슬림 vol.4, p.1473, #6765

자비르는 선지자님께서 동물의 얼굴을 때리거나 동물들의 얼굴에 소인을 찍는 것을 금하셨다고 전한다.

사히 무슬림 vol.3, p.1163, #5281

“전능하신 알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아담의 자손아, 그대가 나에게 요구하고 간청하는 만큼 나는 그대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며 그 잘못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 아담의 자손아, 그대의 죄가 하늘의 구름까지 달한다 해도 나의 용서를 구하면 나는 그대들을 용서할 것이다. 오! 아담의 자손아, 그대들의 죄가 대지를 가득 채울 만큼 큰 것이라 해도 나에 대해 동반자를 두지 않고 내게로 귀의한다면 그 만큼의 용서를 베풀 것이다.”

사히 수난 앗-티르미디 vol.3, p.175-176, #2805

히샴 빈 자히드가 전하는 바로 그와 그의 아버지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하킴 이븐 아이웁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 암탉 한 마리를 과녁 삼아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나스는 알라의 사도님께서 동물을 과녁으로 삼아 사냥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말해 주었다.

사히 무슬림 vol.3, p.1078, #4182

성 꾸란 구절 목록

94:5-6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실로 고난이 있으되 구원을 받을 것이라

51:19

그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필요로 한 자와 요구하지 못한 자에게 일정한 뜻을 베푸는 자라

26:214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

9:103

그들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 받으라 그로하여 너희는 그들을 정화하고 순화하며

9:85

그들의 재산과 자손이 그대를 놀라게 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고 그들은 불신자가 되니라

27:14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불의와 거만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2:255

그들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허락한 것 외에는 그 분의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니라

98:7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가장 의로운 자들로

2:216

그러나 너희가 싫어해서 복이 되는 것이 있고 너희가 좋아해서 너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있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라

19:96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노라

2:165

그러나 무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랑하나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보다 강하도다

6:28

그렇지 못하리니 그들이 숨겼던 것들이 그들 안중에서 밝혀지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금기된 것들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24:63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에 거역한 자를 경계할지니 이는 그들 위에 시련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들 위에 고통스러운 별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42:11

그분에 비유할 것 아무 것도 없도다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11:7

그분은 육일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 위의 권자에 앉으시어 너희 중에 선을 행함을 시험 하시더라 그러나 그대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 마술이라 그들이 말하리라

6:96-97

그분은 또한 아침을 두었으되 밤을 두어 쉬게 하였으며 태양과 달을 두어 시간을 알도록 하셨으니 그것이야말로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배열이시라

하나님은 또한 별들을 두어 육지와 바다의 어두운 영역을 그것으로 하여 너희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니 그분은 지혜를 가진 백성을 위해 말씀을 세분화 하셨노라

21:23

그분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아니하나 그들은 심문을 받니라

2:186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를 가까이에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51:56

내가 영마와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4:32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많이 받는 자가 있나니 시기하지 말라

14:34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 헤아려 보려하나 헤아릴 수 없으니

42:30

너희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손들이 얻은 것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은 아직 그들 대다수를 용서하고 계시니라

2:183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자체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

3:110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6:165

너희 가운데 무리를 다른 무리 위에 두었더라

8:28

너희 재산과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과하니 실로 큰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니라

4:29

또 너희 자신들을 살해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2:153

믿는자들이여 인내와 예배로써 구원하라 실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 편에 있노라

63:9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재물과 너희 자손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염원함에 벗어나서는 아니되나니

33:41

믿음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많이 염원하라

2:264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네가 바치는 희사를 상기시키거나 모욕하여 이를 헛되게 하지 말라

2:218

믿음을 가진자 이주를 한 자 하나님의 길에서 투쟁한자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나니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라

5:91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써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

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

58:19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케 하더라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로 사탄의 무리는 멸망하게 되니라

6:160

선을 실천한자 그에게는 열배의 보상이 있으며 악을 끼친자 그에게는 그와 같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상되지 아니하니 어느 누구도 부정한 대우를 받지 않노라

20:14

실로 내가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여 나만을 생각하라

12:67

실로 명령은 하나님께만 있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만 의존하며 의탁하는 모든자들이 그분에게 위탁하도록 하리라

12:87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치 아니하니 불신하는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6:153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의 길이니 그것을 따르되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너희들을 그분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정직하라

18:49

실로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대하시지 아니하노라

40:57

실로 하늘과 대지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4:48

실로 하나님은 그분에 비유하려 한 자를 용서치 아니하며 그 외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용서를 베푸시나

18:7

실로 하나님은 대지 위의 모든 것을 장식으로 두었을 뿐 이는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 가를 시험코자 함이라

13:28

실로 하나님을 염원할 때 마음이 평안하니라

3:67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으며 또한 우상을 숭배한 분도 아니었노라

29:2-3

우리는 믿나이다 라고만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아니한다고 사람들을 생각하느뇨 하나님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도 시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8:25

유혹을 멀리하라 너희 가운데 우매한 자만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매 실로 하나님의 벌이 강하심을 너희가 알라 하셨노라

43:13-14

이리하여 너희가 등위에서 안정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앉아 있을 때 너희 주님을 염원하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희에게 순종케 하여 주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라고 말하고

저희는 저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함이라

3:85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니 내세에서 패망자 가운데 있게 되리라

30:41

인간의 손이 저지른 부폐가 육지와 바다에 만연했나니 그들이 행했던 일부를 맛보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니

35:45

인간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케 하신다면 땅 위에 어떤 생물체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

113:1-2

일러가로되 동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
창조된 사악한 것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7:188

일러가로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없으며 해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내게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면 나는 더하여 복을 받았으며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없었으리라

3:31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3:31

일러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라

6:162

일러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 모두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

25:43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는 자를 보았느뇨

3:135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염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32:12

죄인들이 그들의 주님께 그들의 고개를 숙이며 주여 저희들은 지켜 보았으며 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도록 하여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선을 행하여 믿는 자들이 되리라 하더라

110:3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관용을 구하라

7:172-173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더뇨 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 하도록 함이라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숭배하였을지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에 불과함 일 뿐이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망하려 하심이요 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67:2

죽음과 생명을 제정하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해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17:44

칠천과 대지가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니 영광으로 그분을 찬미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그들의 찬미를 알지 못하나

39:62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37:96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그러하다고 하니

64:11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재앙도 있을 수 없나니

3:19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며

7:194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들도 너희와 같은 종들이라

16:71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우열을 두셨노라

2:286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

48:6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증하는 남성과 여성 남성의 불신자와 여성의 불신자 하나님에 대하여 사악한 억측을 하는 자에게 응벌을 내리시니 사악한 것들이 그들 주변을 맴도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여워 하사 그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여 두셨으니 사악함이 그들의 운명이라

65:3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누구든 하나님으로써 충분하니라

2:155-156

하나님은 두려움과 기아로써 재산과 가족과 곡식들을 손실케하여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있으리라
재앙이 있을 때 오 주여 우리는 주안에 있으며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

32:21

하나님은 가장 큰 별에 앞서 가까운 현세의 별로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속죄하기 위함이라

2:286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주지 않으시도다

14:32-33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셨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게하여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였노라 또한 너희를 위해 우주를 주관하시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바다를 운행케 하고 강이 너희에게 유용케 하셨더라

그분은 해와 달이 항상 그 운행을 지키게 하여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며 밤과 낮을 너희에게 유용케 하시니라

참고 문헌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출판청, 최영길 박사>

빅 베스트 성경 <성서원, 편찬대표 이종성 박사>

Albaanee. Nassirud-Deen, **al-Irwaa' al-Ghaleel**, Beirut: al-Maktab al-Islamee 1st ed. 1979

Saheeh Sunan Abi Daawood, Beirut: al-Maktab al-Islamee, 1st ed. 1988. Daawood

Saheeh Sunanat-Trimithee, Riyadh : Arab Bureau of Education for Gulf States, 1st ed. 1988

Saheeh Sunan Ibn Maajah, Beirut : al-Maktab al-Islamee, 3rd ed. 1988

Silsilah al-Ahaadeeth as-Saheehah, vol.1, Beirut : al-Maktab al-Islamee, 4th ed, 1985

Silsilah al-Ahaadeeth as-Saheehah, vol.4, Riyadh : Maktabah al-Ma'aarif, 4th ed, 1988

Chambers Pocket Dictionary, Edinburgh : W & R Chambers, 1992

Hasan, Ahmad, **Sunan Abu Dawud** [English], Lahore : Sh. Muhammad Ashraf Publishers, 1st ed. 1984

Khan, Muhammad Mushin, **Sahih Al Bukhari** [Arabic-English], Riyadh : Maktabah ar-Riyaad al-Hadeethah, 1981

Rahimuddin, Muhammad, **Muwatta Imam Malik** [English] Lahore : Sh. Muhammad Ashraf, 1980

Reese, W.L,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Religion**, New Jersey : Humanities Press, 1980

Robson, James, **Mishkat Al-Masabih**, Lahore :Sh. Muhammad Ashraf, 1981

Siddiq, Abdul Hamid, **Sahih Muslim** [English], Lahore : Sh. Muhammad Ashraf Publishers, 1987

The Living Webster Encyclopedic Dictionary, Chicago : The English Language Institute of America, 1975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Chicago :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ed, 1991

The World Book Encyclopedia, Chicago : World Book, 1987

The Purpose of Creation

창조의 목적

저자 : 아부 아미나 빌랄 필립 박사
Dr. Abu Ameenah Bilal Philips
발행처 : 아담 출판사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37-46
전화 : (02) 794-0968
이메일 : booksadam@yahoo.com